잡곡 가격 천정부지… '웰빙밥상' 차리기 어렵네

지난해 작황 부진·재배 면적 감소

팥 50%·흑미 40%·콩 15% 올라

웰빙·힐링으로 잡곡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잡곡밥의 주재료인 콩과 팥, 흑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따라 잡곡밥 한 공기를 조리하는 가격도 1000원대를 넘어섰다.

2일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콩(백태·국산·kg) 가격은 대형마트 유통가를 기준 1만3200원으로 1년 전 1만5000원에 비해 15%나 올랐다.

콩의 재배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다 주요산지 중의 하나인 호남지역 농가 상당수가 지난해 태풍 '볼라벤'의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팥(적두·국산·kg)의 가격도 1만7400원에서 2만5600원으로 50% 가까이 크게 올랐다. 지난해 대폭 오른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나마 최근 들어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은 팥이 전국 대부분에서 재배되기 때문이다.

건강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흑미의 가격도 도매가(80kg) 기준으로 24만7500원에서 34만6250원으로 40%나 뛰어 올랐다.

소매 가격 역시 한 되(약 1804㎖)를 기준으로 몇 달 전만 해도 1만1000원에 거래됐던 것이 현재는 1만4000원에 팔리고 있다.

주요산지인 전남 진도와 충북 진천의 흑미 농가들이 지난해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수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시 북구의 한 미곡상은 "지난해에 비해 특히 흑미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그 외 잡곡들도 올라 국산 보다 저렴한 외국산을 찾는 손님이 많아 졌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관계자 역시 "최근 몇 년간 작황부진과 재배면적 감소 탓에 잡곡 가격이 계속 올랐다"며 "특히 지난해 태풍으로 국내 주 농업지역인 호남농가들의 피해가 커 가격 급등세를 부채질했다"고 설명했다.

잡곡 가격이 큰 폭등으로 상승하면서 주부들의 근심도 늘고 있다. 원재료 인상으로 식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밥 한 공기를 평균 200g(쌀 100g·콩 30g·팥 30g·흑미 40g 기준) 가량으로 조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밥 한 공기 가격이 올해는 1144.1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5.2% 상승하며 1000원대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잡곡의 선호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며 "가격 인상에 따라 소비 심리가 수입산 쪽으로 옮겨 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잡곡 가격의 인상이 한시적이지 않으리라는 데 있다.

값싼 수입산이 밀려오고 당분간 인상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요 잡곡가격의 인상세가 가파른데다 올해에도 많은 비와 늦여름 태풍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산 잡곡 가격의 추가 인상마저 우려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상점에서 찰흑미가 한 되에 몇 달전 보다 3000원이 오른 1만4000원에 팔리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파트 관리비' 카드 갱신 내달부터 전면 중단

이용 고객 215만명… 불만 커질 듯

200여만명이 애용해오던 '아파트 관리비' 카드의 갱신이 오는 8월부터 전면 중단된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 이체와 할인을 해주던 카드 신규 발급은 7월부터 중지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오는 8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결제 또는 할인 기능이 탑재된 카드를 유효 기간 만료시 갱신해주지 않기로 했다. 해당 고객만 215만명에 달한다.

아파트관리비 신용카드 결제를 대리하는 업체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항의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이 같은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파트관리비 제휴카드의 신규 발급은 이달부터 완전히 중단되며 기존 카드를 갖고 있던 회원들은 8월부터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는 은행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면서 "그동안 과도했던 카드 부가 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관리비 제휴 카드의 유효 기간이 2014년 3월까지면 그때까지 혜택이 보장되지만, 올해 8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는 갱신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에 의거해 '아파트 관리비 관련 카드 이용이 8월부터 중지된다'는 내용을 이달 말까지 고객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전용 카드로 돈을 아꼈던 고객으로서는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각종 관리비 할인 혜택도 사라지고 카드 대신 통장 계좌로 자동 이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고객의 불편이 큰 사안인데다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도 늦어졌다"며 "고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해당 고객들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은 송기진 행장 소장도서 동신대 기증

광주은행 송기진 은행장이 2일 오전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도서관에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로 본인 소장 도서 500여권을 기증했다.

대상 도서는 송 행장이 지난 2008년 광주은행장 취임 이후 소장해 오면서 틈틈이 읽던 것으로 금융 및 경영 관련 최신 전문 서적들은 물론 마케팅 서적, 자기계발서, 베스트 셀러 등 각 분야의 우수 도서들이다.

송 행장은 "젊은 날의 한 권의 책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말처럼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기증한 책들이 지역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행장은 축하 화분 공매수익금 기부, 대학교 특강료 및 출장비 KJB사랑샘터 기부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생경영'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여수 엑스포타운 토지 공급 재개

LH 광주전남지역본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일 여수시 덕충동 엑스포타운의 토지 공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엑스포타운은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행사지원시설로 사용된 토지로, 9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공급토지는 단독주택용지 12필지, 블록형단독주택용지, 종교시설용지 각 1필지의 추첨용지와 상업용지 9필지, 주상복합용지 4필지, 주차장용지 3필지의 입찰용지다.

엑스포타운은 KTX를 통해 서울까지 3시간26분, 완주~순천 고속국도(118㎞)와 목포~광양 고속국도(107㎞)를 통해 서울~여수 4시간대로 교통여건이 개선됐다.

또 여수~광양은 '이순신대교'가 정식 개통해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1-653-2051).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6월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량·대금 감소

6월 광주·전남지역의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6월 주식거래량은 3억9559만주로 전달보다 4.85%(2018만주) 감소했으며 거래대금 역시 2조97억원으로 24.18%(6408억원) 줄었다.

지역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은 거래량은 지난달 2.41%에서 2.52%로 소폭 증가했으며 거래대금은 1.75%에서 1.57%로 감소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 KODEX레버리지, 신일산업, 금호종금, 로케트전기, STX팬오션 등의 순이고 코스닥시장에서 테라리소스, 이화전기, 예당, 서희건설, 국제디와이, 옴니시스템 등의 순이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 KODEX레버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ODEX인버스 등의 순이고, 코스닥시장에서 테라리소스, 셀트리온, 젬백스, 이화전기, 게임빌, 루멘스 등의 순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CS 롤플레잉 경진대회' 금상

NH농협은행 목포중앙지점(지점장 김양곤)은 지난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900여개 금융점포 대상으로 진행됐던 'CS 롤플레잉(R/P) 경진대회'에서 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